

전북 학급수 초 37·중 13학급 증가

전년대비 고교 45학급 줄어... 지난 5년새 중·고 학급편성 기준인원 5명 정도 축소

전북도내 올해 초등학교 학생수와 학급수는 지난해보다 325명, 37학급이 늘었고, 중학교 학생수도 지난 3개년 간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올해 중학교 학급수는 지난해보다 13학급이 늘어났다. 반면, 고등학교는 지난 3년간 학생수와 학급수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지난해보다 45학급이 줄었다. 공·사립 초·중·고 전체를 합산하면 5학급이 늘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1일자로 2018학

년도 공사립 각급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난해 9만6,642명에서 올해 9만6,967명으로 325명(0.3%)이 늘어났고, 총 학급수도 지난해 4,797학급에서 올해 4,834학급으로 37학급(0.8%) 늘어났다.

중학교 학생수는 지난해 5만3,394명에서 올해 5만3,976명으로 2,418명(4.5%)이 줄어들었지만, 총 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에 따라 지난해 1,972학급에서 올해 1,985학급으로 13학급(0.7%)이 늘어났다. 학급당 학생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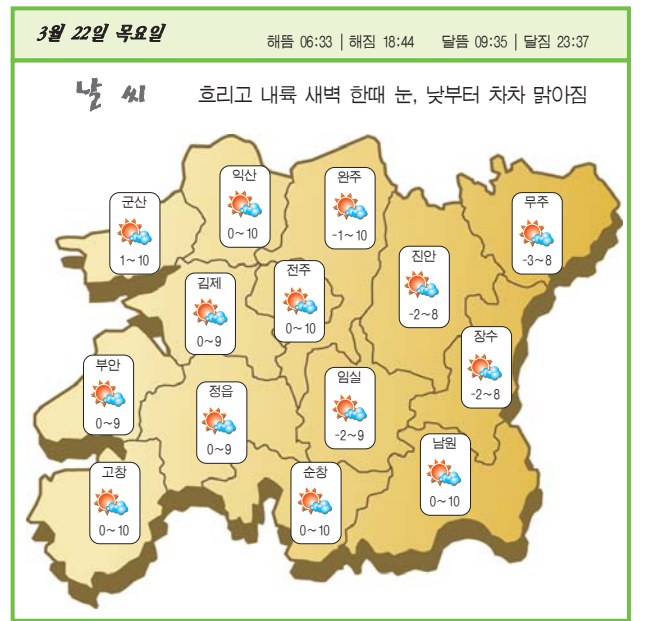
2014학년도 이후 교실 수업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지난 5년간 6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도시 동지역 기준 2014년 35명, 2018년 29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지난해 6만5,551명에서 6만8,177명으로 4,734명(7.2%)이 줄어들었고, 총학급수도 지난해 2,305학급에서 올해 2,260학급으로 45학급(2.0%)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수도 2014학년도 이후 교실 수업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지속적

으로 감소시켜 지난 5년간 5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도시 동지역 기준 2014년 35명, 2018년 30명)

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전년도 21만5,587명에서 올해 20만 8,760명으로 3.2%가 줄었지만, 학급수는 지난해 9,074학급에서 올해 9,079학급으로 5학급이 늘어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 교실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관 개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전시관 개관식이 21일 무주를 최복미술관 1층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9면>

전북대, 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

창업동아리 40팀 모집-지원팀 선정...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북대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학생 창업에 지원한다.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김만영)가 우수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을 위해 예비 창업동아리 및 학생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 예비 창업동아리(기업) 총 40팀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하여 1개월

동안 창업 역량강화 교육과 창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시제품 개발비 지원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창업동아리 500~700만원, 학생창업기업에 1천만원 이내의 시제품 개발비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민 기자

전주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광장 조성 착수

2022년까지 17억 투자... 이달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주시가 연간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생명수였던 쌍샘을 복원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 과거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아래 쌍샘(쌍샘)을 복원하고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주 전통문화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쌍샘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추정 사업비 약 17억을 투자해 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쌍샘을 복원하고 주변에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쌍샘이 복원되면 우물을 통해 만남과 소통이 이뤄졌던 옛 풍습 재현 등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 한옥마을에 새로운 역사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과거 한옥마을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쌍샘우물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역사·전통문화 자원으로 복원해 옛 생활풍습을 재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사람들이 물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드림스타트 아동 구강검진 협약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21일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 유치 불소도 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스타트 치과지원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진행, 전주시 치과의사회 모든 회원이 동참해 대상 아동들은 가까운 치과의원 어디에서나 구강검진 및 충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와 치과의사회는 구강검진 후 7세 미만 유치는 불소도포, 충치소견 있는 영구치는 1인당 3개까지 레진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까지 맡기로 했다. /채규남 기자

'만약 내가 여행을 간다면'

야호학교, 전라중 학생과 프로그램 기획

전주시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전라중학교를 찾아가 3학년 학생 69명과 함께 '여행'을 테마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화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자신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오는 4월 24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전라중 강당에

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라중 3학년 학생들은 총 8개조로 나누어 '만약 내가 여행을 간다면'을 주제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행가기 위한 준비물과 역할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화 프로젝트에는 전라중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완산중학교와 동중학교, 완산고등학교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24, 5311)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